

에돔 심판 신탁

본문 : 에스겔서 35장 1-15절

2020년 4월 17일(금)

#1. 에돔을 향한 심판(1-9절)

2절, "... 세일 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7절, "내가 세일 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9절,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세일 산은 에돔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국가나 진배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에돔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돔은 형제 국가이니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돔의 삼대 후 자손들은 그들이 원한다면 이스라엘 성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에돔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돔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 편에 서서 원수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바다서 11-14절에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에돔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5절,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 '한'은 에돔의 조상인 에서 때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속임을 당해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긴 후부터이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나님도 이해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되는 것과 죄를 행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해가 된다고 해서 행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이해가 되면 정상참작이라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도 타협이 없으십니다.

이해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행한 죄를 아니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 거기 계셨던 하나님(10-15절)

10절,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에돔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도록 바벨론을 도왔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 당하자,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되었습니다.

에돔은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땅을 모두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은 원래 자신들의 것인데, 야곱의 자손들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시 자신들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10절, "...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은 야곱의 자손들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 사라졌지만,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셨습니다.

12-13절, "네가 ...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에돔은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보며 모욕하고 저주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일컬어 자기 백성 이스라엘 하나 지켜주지 못한 무능한 신이라고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그곳에서 그들의 탐욕과 대적하는 소리를 다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3.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4절, "...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9절, "...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1절, "...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15절, "...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어제 이스라엘에게는 회복과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34:30**)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돔에 대해서는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네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여호와 인줄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4. 에필로그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중입니다.
고작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두려움과 패닉에 빠지게 되었고,
의료, 경제, 문화, 종교 등, 사회 모든 분야가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더 성경을 읽고, 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새롭게 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심판이나 징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